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트럼프의 캐나다/이란 관세 제재로 미 물가 압력 커져
- WSJ: 연준 새 의장의 인플레 입장은 어떤가?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연방 재무장관의 '국채 트위스트' 카드, 금리 인하 효과 적어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미, 이란 새로운 경제 제재 발표 예정
- WSJ : 미국의 이란 2차 제재(세컨더리 제재)는 무엇인가

[오일]
- YahooFinance: 원유 하락세…미국의 이란 제재 앞두고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캐나다, 미 50% 관세에 2백억 불 보복 조치 예고

[글로벌 경제]
- Bloomberg: 트럼프, 중국 기업들의 중남미 영향력 통제 힘들어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WSJ: 아마존, 5백 개 도시/타운으로 배송 확대
- WSJ: 테무, 순이익 줄어도 시장 예상치 상회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Tariff-Driven Inflation Risks Return With Trump Moves on Canada, Iran
트럼프의 캐나다/이란 관세 제재로 미 물가 압력 커져

- 7월 미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월간 0.2% 상승하며 연준의 목표치(2%)로 점자 가까워지는 듯했다.
- 그러나 무역 갈등 재발로 걸림돌이 발생했다. 미·캐나다 무역 협상 결렬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% 관세가 발효됐으며,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.
- 미 재무부가 이란 거래국을 겨냥한 2차 제재(세컨더리 관세:이란 관련 제3국에도 제재)에 나설 경우, 핵심 거래국인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돼 미국 내 인플레를자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.



기사

WSJ: Warsh's Old Forecasts Show How He Formed His Views on Inflation
연준 새 의장의 인플레 입장은 어떤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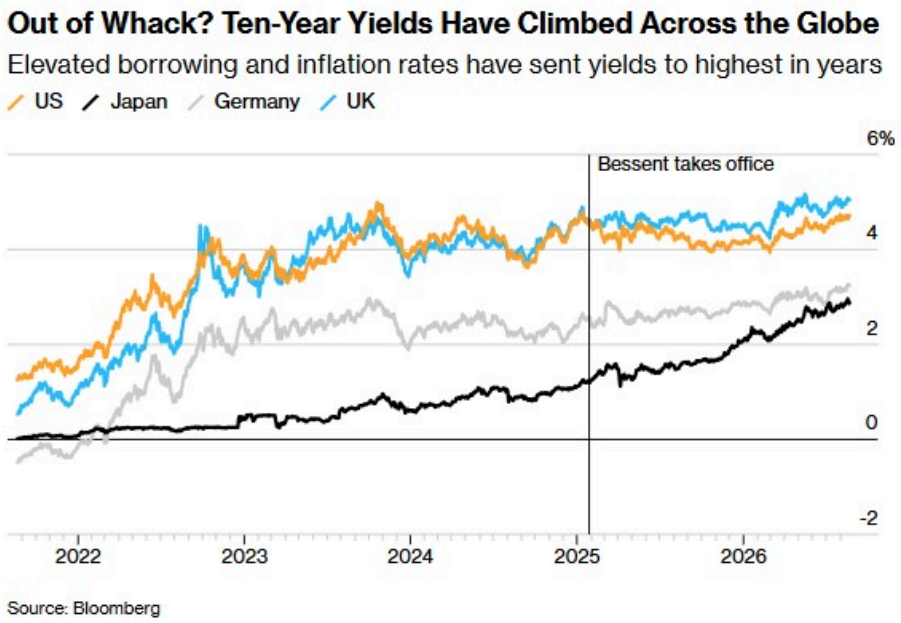
-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, 과거 연준 이사 재직 당시의 경제 전망을 통해 그의 인플레이션관을 엿볼 수 있다.
- 당시 핵심 쟁점은 '높은 실업률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'이었다. 대다수 관리는 9%에 달하는 고실업률이 소비를 위축시켜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했다. 반면 워시는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구조화된 고실업이므로, 실업률이 높아도 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.
- 이처럼 워시는 다른 관리들에 비해 인플레 위험을 크게 경고했으나, 이후 수년간 그가 우려했던 물가 폭등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Bessent Has No Easy Fix for What's Really Driving Yields Up
연방 재무장관의 '국채 트위스트' 카드, 금리 인하 효과 적어

- 연방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들여 시중 금리를 내리는 '국채 트위스트(Treasury Twist)' 카드를 꺼냈으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. 금리가 트럼프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시 오르면서,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만 입증됐다
- 연방 재무장관은 AI 기업의 대출 금리까지 낮추는 '수익률 곡선 관리'를 구상 중이지만, 시장에서는 재무부의 자체 조치보다 연준 직접적인 돈 풀기(양적완화) 없이는 금리를 낮추기 힘들다고 보고있다.
- 수익률 곡선 관리(Yield Curve Control는 정부(재무부)가 특정 만기(예: 10년물) 국채의 금리 목표치를 정해두고, 금리가 그 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금리를 직접 고정하는 통화정책이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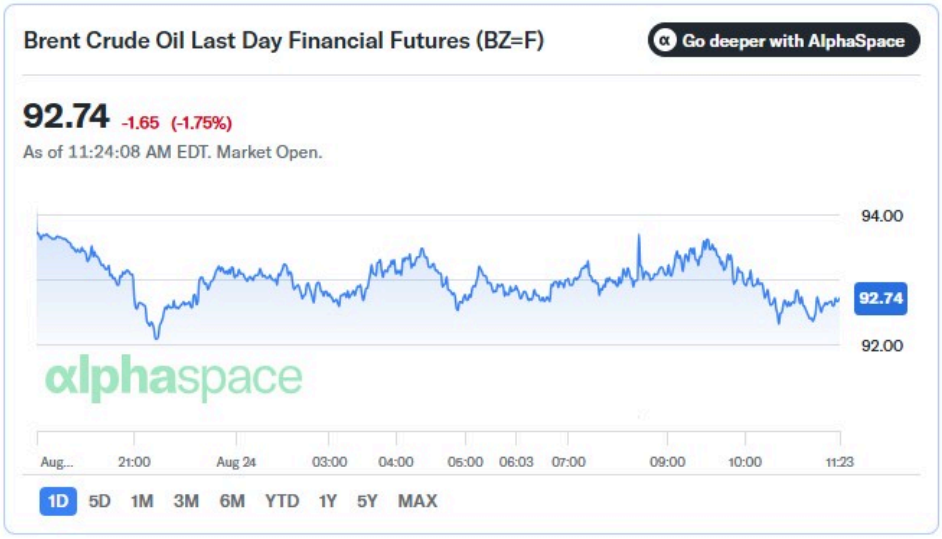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US Set to Unveil Fresh Iran Sanctions as Rial Hits Record Low
미, 이란 새로운 경제 제재 발표 예정

- 미 연방재무장관이 곧 발표하는 제재 정책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려는 정책으로, 기존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에 더해 중국, 튀르키예, 인도 등 이란의 주요 무역국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- 현재 이란 경제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80%를 넘어서고 리알화 가치가 역사상 최저치로 폭락하는 등 심각한 난국에 직면해 있다.
- 이에 이란 당국은 미국의 제재 구상에 협조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.

기사

WSJ: How Can Bessent Escalate America's Economic War on Iran?
미국의 이란 2차 제재(세컨더리 제재)는 무엇인가

- 미 연방재무장관이 발표하려는 제재는 이란산 원유의 90%를 수입하는 중국 등 제3국을 직접 타깃으로 한다.
- 미 정부는 원유를 사들이는 중국 등의 민간 정유사에 이어, 결제를 중개하는 중국계 은행과 해운사까지 미 금융 시스템 및 항만 이용에서 전면 배제하는 극단적 봉쇄를 검토 중이다.
- 다만 다음달 시진핑 주석의 백악관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 금융권을 직접 타격할 경우, 양국 간 갈등이 급격히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.



기사

[오일]

YahooFinance: Oil Declines With US Economic Isolation Plan for Iran in Focus
원유 하락세…미국의 이란 제재 앞두고

- 2주간 13% 상승했던 유가가 미국 정부의 대이란 경제 고립안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다.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,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86달러 선을 기록했다.
- 올해 유가는 6개월째 이어진 미·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50% 이상 폭등했다.
-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(FT) 기고를 통해 "이란의 조력자들은 이란산을 운송·구매하고 있다"며 경고를 날렸다. 미 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타깃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, 역풍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Bloomberg: Canadians Brace for Economic Pain as 50% US Tariffs Take Effect
캐나다, 미 50% 관세에 2백억 불 보복 조치 예고

- 미국이 수백 개 캐나다 입 품목에 50%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 업들의 최대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.
- 캘거리대 Trevor Tombe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관세 조치가 지속되면 최대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. 이 여파로 캐나다 달러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0.6% 하락한 1.3840달러까지 밀려났다.
- 캐나다 총리는 오는 9월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,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.

기사

[글로벌 경제]

Bloomberg: Trump Fails to Loosen China's Economic Grip on Latin America
트럼프, 중국 기업들의 중남미 영향력 통제 힘들어

- 중국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가 공격적이고 실용적이며, 가격 경쟁력과 적극성을 보이는 중국 기업들의 대 중남미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.
-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전역에 뿌리내린 중국의 경제적 비중과 투자 규모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다.
-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Amazon to Expand Drone Delivery Service to Nearly 500 Locales
아마존, 5백 개 도시/타운으로 배송 확대

-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인 '프라임 에어(Prime Air)'를 연내 500여 개 도시로 확대 적용한다.
- 이번 확대 대상에는 시카고, 아틀란타, 클리블랜드, 시러큐스 등 주요 대도시권이 포함된다.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고객들은 주문 후 최소 30분 만에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- 다만 관련 규제 장벽을 비롯해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논란, 악천후 시 운항 제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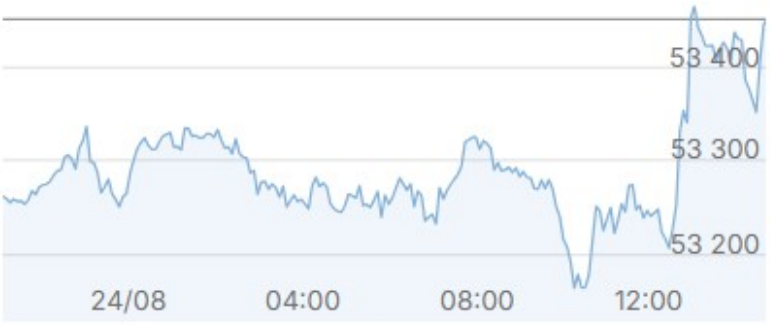
기사

WSJ: Temu Owner's Profit Falls but Beats Expectations
테무, 순이익 줄어도 시장 예상치 상회

- 테무(Temu)의 모기업 PDD 홀딩스가 2분기 순이익 271억 8,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(244억 위안)를 웃돌았다.
- 현재 PDD는 Douyin과 Xiaohongshu 등 라이브 커머스와 숏폼 플랫폼의 가파른 추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위협받고 있다.
- 여기에 최근 EU로부터 불법 상품 유통 방지 소홀 혐의로 2억 3,0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악재도 겹친 상태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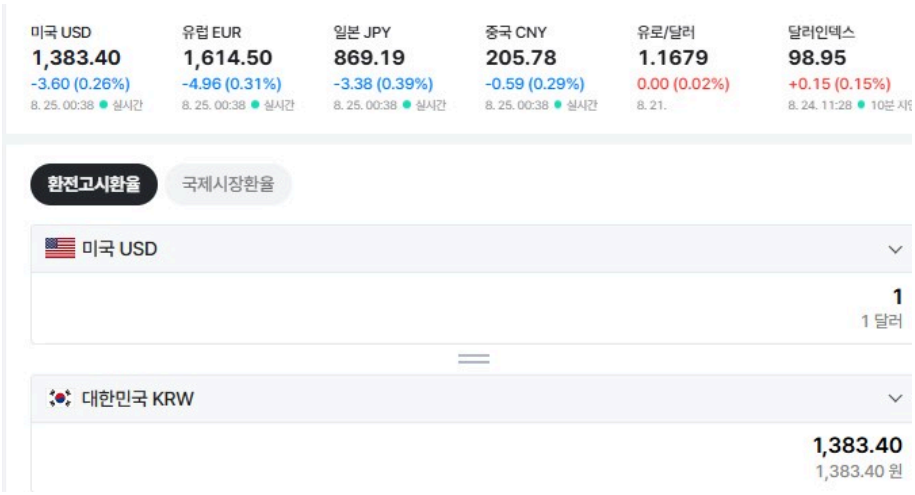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3,433.40	+156.6	+0.29%
US 500	7,658.90	-15.4	-0.20%
Dow Jones	53,428.85	+151.84	+0.28%
S&P 500	7,657.89	-16.41	-0.21%
Nasdaq	26,066.96	-113.49	-0.43%
S&P 500 VIX	15.77	+0.64	+4.23%
Dollar Index	98.875	+0.146	+0.15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29/32	5.227	-0.048
10-Year Note	4.625	3/32	4.698	-0.038
7-Year Note	4.375	24/32	4.536	-0.034
5-Year Note	4.375	1/32	4.406	-0.023
3-Year Note	4.25	1/32	4.302	-0.018
2-Year Note	4.25	0/32	4.238	-0.002
1-Year Bill	0	0/32	4.023	0.004
6-Month Bill	0	0/32	3.921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